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㉕ 장보고의 적산법화원

적산법화원은 신라불교 전진기지

장보고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적산법화원' 의 모습.

불교 통해 한·중·일 문화교류
문화 흐름따라 구법승 행렬 이어
신라 혜초 등은 실크로드 넘기도

경주 남산에 이어 다시 중국으로 길을 돌리려 한다. 중국으로 길을 나서는 것은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와 완성된 시기 사이에 한국 · 중국 · 일본의 문화교류로 많은 변천양상이 있었고, 이런 영향이 다시 한국불교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당(唐)나라 당시 가탐(賈耽; 730~850)이 저술한 〈도리기(道里記)〉에 한국 구법승들의 입국 경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서술돼 있다.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불교문화 교류는 단순한 교류의 차원이 아닌 고대 동아시아 문화를 상호간에 전파하는 수단이었다. 이 통로를 통해 한 · 중 · 일 삼국은 유기적 문화교류를 통한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 삼국시대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불교는 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땅에 화려한 불교의 자취를 남겼다. 이러한 불교의 변화는 수동적인 불교 수용이 아닌 능동적인 불교에 대한 갈구로부터 시작한다.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구도 여행은 한국불교를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꿨다. 무수히 많은 승려들이 중국을 넘어 실크로드까지 구법여행을 떠났다. 심지어 인도에 도달한 승려도 있을 정도니 당시 구법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는 미뤄 짐작 할 수 있다.

그들이 머나먼 구도 여행을 통해 얻고자 한 것들은 단순한 사상이나 신앙이 아닌 거대한 문화의 흐름이었다. 무수한 구법승들이 그들의 길을 떠나고 그 속에서 이 땅의 불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갔다. 산둥지역은 고대 한 · 중간의 가장 중요한 통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육로의 시작점이자 귀국의 중요경로로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신라불교와 관련된 사찰이 몇 군데 존재한다. 이 지역에 관한 기록은 일본의 승려였던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한국불교와 관련된 사찰이 전하고 있다.

흔히 장보고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적산법화원' 은 당시 신라인들에 의한 신라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시기는 장보고가 신라로부터 청해진대사로 임명되던 828년 시기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보고가 무령군 군중소장에 있을 당시,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사찰의 건립이 힘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그가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당시가 아마도 이러한 사찰을 건립할 수 있는 시기로 봄은 타당하다. 엔닌은 "적산은 실로 암석이 높이 솟아 있는 곳으로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이다. 산에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은 적산법화원이다. 본래 장보고가 처음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전을 가지고 있어 식량에 충당하고 있다. 그 장전은 1년 동안에 500석의 곡식을 수확했다. 이 법화원에서는 겨울과 여름에 불경강회가 있다. 겨울에는 〈법화경〉을 강설하고 여름에는 8권 본 〈금광명경〉을 강의한다" 라고 적고 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적산법화원의 법회는 우리말로 했었다고 하니 한국불교의 흔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㊴ 삼월

며칠은 가랑비가 날짜를 휘휘 넘기더니 며칠 째 꽃샘추위가 날짜를 붙들고 섰다. 3월의 보폭은 예측불허다. 며칠이 휙 지나간 것 같을 때도 있고, 몇 날이 그대로인 것 같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쯤이면 꽃이 피기 시작한다. 꽃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차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3월이다. 마치 차를 모는 몇 시간 동안 꽃이 핀 것 같다.

고창 선운사. 돌담 너머로 노란 산수유가 피었다. 며칠 붙들렸던 날짜가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다. 다시 차를 몰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꽃은 질 것이다. 그랬다. 차를 모는 몇 시간 동안 돌담 너머 노란 산수유는 모두 져버렸다. 그랬다. 그 해 삼월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시 3월. 곧 꽃이 필 텐데 슬픔 속에 서게 된 이들이 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하룻밤은 길다고 했던가. 꽃피는 3월이지만 슬픔 속에 있는 이에게 올 3월은 길기만 할 것 같다. 몇 해 전 돌담 너머에 핀 노란 산수유가 생각난다.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④ 조선 함허기화 선사의 '산중미(山中味)'

공연히 하늘에 뜬 달 바라보네

山深谷密無人到 (산심곡밀무인도)	깊고 그윽한 산골 오는 사람 없어
盡日寥寥絶世緣 (진일요요절세연)	하루 종일 고요하여 세상인연 끊어지네.
晝則閑看雲出岫 (주즉한간운출수)	낮에는 한가로이 산봉우리에 이는 구름 보고
夜來空見月當天 (야래공견월당천)	밤에는 공연히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네.
爐間馥郁茶烟氣 (로간복욱다연기)	화로의 짙은 향기 차 달이는 연기요
堂上氤氳玉篆煙 (당상인온옥전연)	법당의 자욱한 향내 옥 향로의 서린 연기로다.
不夢人間喧擾事 (불몽인간훤요사)	인간의 시끄러운 일 꿈꾸지 않고
但將禪悅坐經年 (단장선열좌경년)	다만 참선하는 즐거움으로 앉아 해를 지내네.

조선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스님은 21세 때 출가, 오대산에 들어가 나옹 화상의 영정에 공양을 올리다가 꿈에 기화(己和)라는 이름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성리학 도입과 배불론의 격화가 이뤄지던 조선 초 〈현정론(顯正論)〉을 저술해 "불가에서 말하는 오계(五戒)는 유가의 오상(五常)"이라는 등 유불불이(儒佛不二) 사상을 전개시켰다.

이 시는 산중의 맛을 그려낸 시답게 거의 모든 시어들이 산중에서 만나는 자연이다. 이 산과 계곡, 구름과 달을 벗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절세연(絶世緣)' 이 가져다주는 한(閑)과 공(空)을 표현했다. 차 달이는 연기와 고물고물 피어오르는 향로의 연기를 통해서는 수행자의 삶 자체가 곧 자연임을 보였다. 이어 산중의 가장 큰 맛은 '참선하는 즐거움[禪悅]' 이라고 했다. 스님은 구름과 달을 바라보고 차 마시고 예경하는 모든 것이 선이며 산중의 맛이라고 한 것이다.

혹자는 세간과의 단절로 인한 산중의 맛이 과연 불교사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수행자상인가? 라고 의문스러워할지도 모른다. 스님의 선열이 배불 속에서 조선 불교계가 영속할 수 있는 한 토대로 드러나고 있음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